



# 금·금·금... 체조 요정 '진통제 투혼'으로 3관왕



## 리듬체조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종목별 결승 후프와 볼에서 금메달을 추가, 3관왕을 차지했다. 손연재는 13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리듬체조 종목별 결승 후프와 볼에서 각각 18.300점과 18.250점을 얻어 금메달 2개를, 곤봉과 리본에서 17.800점을 획득해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지난 11~12일 개인종합 결승에서 한국 리듬체조 선수로는 최초로 유니버시아드 금메달을 거머쥔 손연재는 이날 금메달 2개를 추가해 3관왕에 올랐다.

전 종목 1위로 종목별 결승에 진출한 손연재는 종목별 결승 첫 두 종목에서 더 완성도 높은 연기로 예선 때의 점수를 능가하는 고득점에 성공했다.

첫 종목인 후프에서 첫 번째 연기자로 나선 손연재는 이스라엘 피아니스트 다니엘 아드니의 클래식 연주곡 '코니시 랩소디'(Cornish Rhapsody)에 맞춰 섬세하

## 손연재, 개인종합·후프·볼 잇따라 우승

### 곤봉·리듬 은메달 "5관왕 놓쳐 아쉽다"

고 완성된 연기를 펼치고 예선(18.000점) 때보다 0.3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곱번째 순서로 나선 볼 결승에서도 손연재는 스페인 가수 라파엘의 팝 '소모스'(Somos)를 배경음악으로 정확한 표현력과 수준 높은 기술로 각종 난도를 무리없이 소화하며 또 한 번 고득점에 성공하

고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점수는 18.250점으로 예선(18.150점) 때보다 0.1점 높았다.

하지만 후식 후 이어진 곤봉에서는 강행군에 체력적으로 지친 듯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수구를 놓치는 실수를 했고, 리본에서는 녹록한 날씨 탓에 리본

이 꼬이는 악재까지 발생하며 두 종목 모두 17.800점에 그쳤다.

손연재는 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3관왕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그래도 부상 없이 건강하게 유니버시아드를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에 안간 금메달 3개가 '진통제 투혼'의 결과라고 뒤늦게 소개했다. 그는 발목 상태에 대해 묻자 "시합 기간에 진통제를 먹어서 느낌이 없다"며 "그런 부분에서 이번 대

회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3관왕에 오른 손연재는 "태극기를 가장 높이 올리는 것이 혼자만의 목표였는데,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유럽 선수들이 참가한 광주U대회에서 태극기를 가장 높이 올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미소지었다.

이어 "내년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13일 나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핸드볼 여자 결승전에서 한국 정유라가 러시아의 수비수를 뚫고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한국 '금메달 잔치'

### 남녀 개인·단체전 등

### 사상 첫 전종목 석권



## 배드민턴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동료인 이용대의 고향에서 금메달 잔치를 벌였다. 한국은 지난 12일 화순 하나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광주U대회 배드민턴 개인전 결승에서 혼합복식, 여자단식, 남자단식, 여자복식, 남자복식 등 전 종목을 석권했다.

지난 8일 획득한 혼합 단체전 금메달과 함께 한국은 이번 대회에 걸린 총 6개의 금메달을 모두 휩쓸었다. 은메달과 동메달도 각각 1개, 2개 수확했다.

이는 한국 대표팀이 U대회에서 거둔 사상 최고의 성적이다.

혼합복식의 김기정-신승찬(이상 삼성전기)이 금메달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김기정-신승찬은 이날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대만의 장카이산-루징야오를 2-0(21-14 21-11)로 꺾고 우승을 확정했다.

이어 여자단식의 간판 성지현(MG새마을금고)이 접전 끝에 태국의 부라나쁘라수속 폰담을 2-0(21-18 21-19)으로 꺾고 우승,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남자단식은 '집안 싸움'으로 펼쳐졌다. '간판' 손원호(김천시청)와 '유망주' 전혁진(동의대)의 대결로 펼쳐진 남자단식 결승전은 유망주 전혁진의 2-1(22-20, 13-21, 21-17) 우승으로 끝났다.

여자복식의 이소희(인천국제공항)-신승찬은 중국의 어우둥니-위사오한을 2-0(21-16, 21-13)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확정했다.

전 종목 석권의 마지막 퍼즐은 남자복식 김기정-김사랑(삼성전기)이 맞췄다. 김기정-김사랑은 중국의 장원-왕이류를 2-0(21-16, 22-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 '태극낭자' 뒷심 부족 아쉬운 은메달



## 핸드볼

U대회 첫 핸드볼 우승을 향한 '태극낭자'들의 도전이 아쉬운 실패로 끝이 났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13일 나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핸드볼 결승전에서 러시아에 36-38로 졌다. 파워와 높이의 러시아를 넘

여, 결승서 러시아에 36-38로 져

남, 동메달 결정전 스위스에 패배

지 못한 한국은 이번 대회 처음 채택된 핸드볼의 우승자 타이틀을 가져오지 못했다. 금메달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기적 같았던 '10분'으로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한국은 후반 막판 12점차까지 벌어졌던 승부를 36-38까지 끌고왔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경기 초반 두 팀은 상대 진

영을 오가며 골을 주고 받았다. 4-4의 팽팽한 흐름에서 내리 두 골을 내준 한국은 김은아의 골로 5-6을 만들었지만 이후 러시아의 공세에 밀렸다. 전반 9분 백상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며 분위기를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한국의 무던 공격에 비해 러시아의 매서운 공격이 골대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전반 17분 8-12까지 점수가 벌어진 뒤 러시아의 질주가 계속됐다. 류은희가 전반 29분 팀의 15번째 득점을 기록했지만

전반전은 15-22로 끝이 났다.

후반 시작 40초 만에 골을 내준 한국은 이어진 역습 찬스에서 강은혜의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패스 실수까지 겹치면서 경기 흐름은 점점 러시아로 기울었다. 후반 8분에는 12점차까지 러시아가 달아났다.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 '태극낭자'들의 눈물겨운 투혼이 펼쳐졌다. 기적 같은 10분이었다.

28-35로 맞선 19분 골키퍼 박세영이 러시아의 슈팅을 잇달아 막아내며 상대를 흔들었다. 후반 21분 김은아 골을 넘어쳐 역습 찬스를 만들었고 정유라가 골을 집어넣으면서 30-35까지 점수차를 좁혔다. 다시 한번 박세영의 러시아의 공세를 봉쇄한

뒤 24분 정유라의 역습으로 32-35를 만들었다. 후반 27분 러시아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간 뒤 이번에는 구예진이 골을 넣으면서 34-36까지 추격이 이뤄졌다. 다급해진 러시아가 후반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하면서 경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28분 역습 기회가 불발되면서 마지막 투혼도 아쉬운 실패로 돌아갔다. 흔들린 러시아를 무너뜨리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경기는 36-38로 끝이 났다.

남자 핸드볼 대표팀의 마지막 경기도 아쉬운 패배였다. 남자 대표팀은 스위스와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부던지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3-5로 지면서 동메달을 스위스에 내어주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